주부명예기자 이야기

나의 겨우살이

이제는 정말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다. 나도 겨우살이를 위해 사무실에 연탄난로를 남편과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서 난로를 설치했었다.

난로와 연통과 철사, 은박테잎 등 난로설치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난로를 설치하기 위해 고민했다. 연통을 연결하여 난로에 부착하고 튼튼하게 철사로 두겹, 세겹 벽과 연결하여 감아 놓는 것도 잊지 않고 난로 뚜껑을 철사로 여러 겹 집어 연결하여 손잡이까지 만들어놓으니 그런대로 모양이 갖추어졌다.

혼자서 해냈다는 뿌듯한 즐거움으로 번개탄을 구입해 불을 피우고 연탄불을 붙였다. 생각보다 연탄난로는 아늑하고 따뜻했다.

'올 겨울 기름 값 걱정은 좀 덜해도 되겠구나!' 혼자 생각하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연탄을 갈아넣을 때마다 연통에서 연탄개스를 머금은 노란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물은 난로를 적시고 연통까지 삭게 만들어 한 달이 지나자 연통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은박테이프로 구멍 뚫린 부분을 감아가며 응급조치를 했으나 역부족으로 결국 두 달 정도 지나자 연통이 부서져 버렸다. 다시 한번 연통을 갈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쓰던 난로를 청소하여 비닐을 씌우고 창고에 넣어 두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서 다시 난로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벌써 날씨가 너무 추워졌네요. 사무실에 연탄난로를 놓아야겠는데.."하며 나는 남편의 눈치를 보았다. 그러자 남편이 "작년에 놓은 걸 보니까 영 엉망이더라. 올해는 내가 직접 놓아줄 테니까 잘 보고 어떻게 놓는 것인지 배워."라며 난로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다.

난로를 설치하기 위해 난로 위치를 정하고 난로를 꺼내려고 창고에 들어가 보니 먼지투성이인데다가 화덕과 분리되어 깨져 있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남편은"제대로 청소도 하지 않고 난로를 보관하면 이렇게 파손되는거야."며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에 쓰던 난로가 아닌 구형무쇠난로를 다시 구입하고 지난해 연통이 삭게 되는 원인을 철저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난로는 설치됐다.

남편과 함께 설치한 연탄난로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가난했던 시절 남편과 난로에 물을 데우고 밥해 먹었던 그때의 향수까지 새삼 불러 일으켜 주었다.

앞으로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늘 따뜻한 난로 위에서 끓고 있는 차와 구수한 군고구마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난로를 남편과 함께 설치할 수 있어서 올 겨울은 더욱 따뜻하게 지낼 것 같고 아울러 사업도 더 잘 될 것 같다. 연탄난로와 추억을 쌓기를 원하는 분들의 방문도 환영한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불조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119나의주장 발표대회 개최

포천소방서는 지난 24일 불조심강조의 달을 맞아 관내 3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19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는 지난 24일 불조심강조의 달을 맞아 관내 3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19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119 나의주장 발표대회는 포천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마음깊이 심어주어 우리 어린이들이 훌륭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및 초등학생들에게 화재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웅변대회를 가졌다.

최덕기 서장은 "어린이들은 안전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성장해야하고 우리 어른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및 재난관련 주제로 포스터, 사생화, 표어, 글짓기등 4개 부분을 공모하여 357점을 접수하였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포천교육청에서 엄선하여 추천한 교사3명을 구성하여 심사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 입상자는 포스터부문 이동초교 남지영, 사생화부문 신북초교 이 산, 표어부문 노곡초교 김예린, 글짓기부문 이곡초교 김대경 학생의 '정말 무서운 불'이 최우수에 입상했고, 119나의주장 발표대회 때 함께 시상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경기 15개 지자체 상용직노조 기본급 2.5% 인상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15개 지방자치단체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경기도노동조합' 간의 200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지난 25일 타결됐다.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15개 지방자치단체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경기도노동조합' 간의 200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지난 25일 타결됐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의 노사실무회의와 16차례의 단체협상, 5차례의 조정회의 등을 진행해온 끝에 이날 협약타결의 결실을 이루어냈다.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사용자측 교섭위원인 경기도 15개 시·군 공공노조업무담당 15명과 홍희덕 경기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측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했다.

협약체결 후 박윤국 포천시장은 상호 인내심을 갖고 원만한 교섭을 이루어낸 노조 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모두 18개 조항, 3개 부칙에 대해 합의를 이룬 이번 200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기본급 2.4% 인상(단, 상대적 저임금 직종은 4% 인상) 2006년부터 월급제 시행 '월차 및 하계휴가 폐지, 특별유급휴가 축소, 주5일제 시행'과 이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목회단상

어느 가문의 딸의 죽음

김 창 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우리는 요즘 어느 가문의 딸이 외국에 유학도중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고 많은 세인(世人)의 안타까움과 동정을 보냈다 그러나 진실은 자살(自殺)이라는 말에 분노와 실망감이 너무나 컸다. "아니!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라고.

세계적인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의 삶은 1841년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BC와 AD로 나뉘게 된다. 원래 그는 주색(酒色)에 빠져 있던 방탕(放蕩)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딸 레오폴디느는 아버지의 타락한 삶을 보다 못해 다음과 같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빅토르 위고는 딸의 주검과 유서 앞에서 울부 짖었다. "나의 타락한 삶이 딸을 죽였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거하리라." 그후 그는 후생국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말년에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20년 후에는 명작 『무정』을 집필했다. '방탕(放蕩)한 사람'에서 '존경(尊敬)받는 사람'으로 변한 빅토르 위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인생관이 달라졌다. 이 진리를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다."

현대인(現代人)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까지도 전능하신 그분의 역사속에 있다. 생명의 귀중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엄숙히 생각해보자.

성서는 이렇게 교훈하신다. 히브리서 9장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문의) 031-532-2489

'사랑의 찰 좁쌀' 나누기

창수면 공원화 사업 수확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 주변환경을 가꾸어 포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지역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추진한 全 市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를 식재하여 얻은 좁쌀을 나눠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창수면(면장 이수한)으로 고향의 옛 정서와 향취를 만끽 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하고 수확하는 기쁨을 나누며 참여하는 공직자는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찰 좁쌀은 군인 300여명을 포함해 연인원 800여명이 참여하여 4km의 도로변, 자투리, 휴경지 등에 재배하여 340kg(40kg×8.5가마)를 생산했다.

이 사업에 대해 이수한 창수면장은 "그동안 꽃 식재와 잡초 제거 등 수확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참여 그리고 도움을 주신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감사의 뜻으로 찰 좁쌀을 나누며 여러 분야에서 취약한 창수면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창수면이 나눈 사랑의 찹 좁쌀.

탐방 우리지역 지킴이-지역방범대 ⑮ 포천동 자율방범대 대장 김종식

대원 확충으로 방범활동 역량 강화

포천동자율방범대는 1994년 창설 초대 양승조 대장에 이어 2대 김인회 대장, 3대 배동면 대장에 이어 현 김종식(43) 대장에 이르고 있다.

자율방범대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신읍파출소에 유급방범대원이 오토바이 순찰로 선단자율방범대가 관할하고 있는 포천시 동교동까지 순찰했을 정도로 넓은 영역을 관할했었다.

현재 포천동자율방범대는 김대장을 필두로 정성기·김승기 부대장, 김민철 사무국장을 포함 31명의 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7개조로 나눠 매일 방법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5년 동안 방범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밤거리 안전을 대원들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김종식 대장으로부터 자율방범대 현황을 들었다. 김 대장은 포천시내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매일 이뤄지는 방법활동은 3~4명이 투입되며, 저녁 9시부터 새벽1시까지 방범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평상시 방범 및 순찰활동뿐만 아니라 포천지구대 음주단속 지원, 교통캠페인 등에 지원을 하고 있다.

"방범대 활동은 단순한 순찰업무가 주가 되지만, 특히 4월부터 6월까지는 청소년 귀가 선도방송을 하는 등 활동영역이 넓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자율방범대가 주로 순찰하는 지역은 호병골과, 신규개설도로 등으로 주로 음주로 인한 주취자의 귀가 및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방범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음주문제다.

"예전에는 어른들에 대한 음주신고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음주로 인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예방노력을 당부했다.

31명으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는 인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 실시되는 교통캠페인 등에 인원 참여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율방범대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포천지구대 맞은편 방범대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동자율방범대는 포천동생활안전협의회(위원장 변하법, 부위원장 나전권)로부터 최근 순찰활동의 기동성를 위해 프라이드 차량을 협조 받았다. 매월 20여만원의 차량 할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김 대장은 "생활안전협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포천시의 분기별 84만원의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안정적인 방법활동에 쓰여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김 종 식
포천동 자율방범대 대장

꽃샘 종합선물세트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ISO 9001. 인증획득 ISO 14001. 인증획득

꽃샘고려홍삼꿀세트
홍삼꿀 1000g

꽃샘토종고가구1호
토종꿀 2400g
꽃샘토종고가구3호
토종꿀 1200g

꽃샘특선봉밀1호
잡화꿀 2200g
꽃샘특선봉밀2호
잡화꿀 1700g

꽃샘 1호
아카시아꿀 1200g
잡 화 꿀 1200g

꽃샘 5호
꿀대추차 1000g
꿀유자차 1000g
꿀솔잎차 1000g
꽃샘 6호
꿀대추차 1200g
꿀유자차 1200g

꽃샘 4호
영지꿀차
솔잎꿀차 × 600g
대추꿀차
꽃샘 기획세트 2호
영 지 꿀 차 1200g
잡 화 꿀 1200g

(주)꽃샘종합식품(대표이사 : 이상갑)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代) FAX.031)541-9933 www.ksfs.co.kr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는 080-541-9920